

필수과목·AP 예비과목 수강 카운슬러와 미리 상의하라

무리한 수준 욕심 내다 성적관리 실패할 수도

■ 과목선택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9학년 때 필수과목인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서 모두 A나 B+로 시작하지만, 운동이나 밴드로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경우 혹은 중학교 때 평균 B로 끝난 학생들은 한

1. 9학년 플랜 여름방학을 일찍 시작한 고등학교는 요즈음 새 학기 등록을 받고 있다. 여름방학 중에 진행되는 등록기간에 부모와 함께 자신의 고교 카운슬러를 만나 새 학기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미국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학부모들은 그저 자녀와 카운슬러가 만들어주는 스케줄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것은 넌센스다. 자녀의 앞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간이니 충분히 자녀와 듣게 될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와 함께 학교에 가도록 하라. 공교육에만 의존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왕좌왕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9학년부터 어떻게 대학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

1. 고교 졸업 필수과목(a-g)을 기억하라?

a: 사회, 역사과목, b: 영어, c: 수학, d: 과학(물리, 화학, 생물 등의 lab이 딸린 과학), e: 외국어, f: 예능, 미술, g: 선택과목(College Prep: 경제, 심리학, 사회학 등) 이는?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로 택해야 하는 수강과목들이다.

2. 대학 진학 필수과목

예를 들면(UC 계열은: www.doorways.ucop.edu/list 참고) 영어 4년, 수학 3년, 실험과학 2년, 역사 2년, 외국어 2년, 예술 1년, 선택과목 1년이다. 고교에서 택하는 과목과 짝은 대학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마다 원하는 필수과목과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카운슬러와 상의하도록 한다.

3. AP나 아너스 과목을 듣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예비과목(Prerequisite)을 알아두라.

중학교 때의 성적으로 아너 과목들을 수강할 자격이 주어지고, IB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은 테스트를 거치기도 한다(예를 들면 AP 생물을 듣기 위해서는 생물 아너스에서 B 이상의



고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지금부터 자녀의 원만한 입시준비를 돕기 위해 수강과목 신청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 교사와 수강과목을 논의하고 있는 학생들. (뉴욕타임스)

4년간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찾아 가입을

점수를 받거나 생물 일반 클래스에서 A를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3월에서 5월 중에 AP 과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너스 과목과 AP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라. 교내에서 원하는 과목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에 가서 택할 것을 추천한다.

4. 교내 클럽활동에 대해서 알아본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 언제 모집이 있는지 아니면 방학 중에 교내 서머캠프에 참가해야 하는지 등을 살핀다.

표준고사를 언제 볼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우선 SAT 단어를 외우기 시작한다. 만약 11학년 초에 SAT 시험을 치를 것을 계획하고 9학년부터 매주 20~5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기 시작한다면 특별히 단어를 위한 벼락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6. 자녀가 관심이 있으며 취미나 개성에 맞는 4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봉사나 자원 봉사활동을 찾아 멤버로 가입시킨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리더십을 키울 수 있으며, 도전적이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희생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는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학년 대학 입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쌓여진 봉사시간 수로 대통령상 등의 수상 경력을 쌓는 것은 대학 입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7. 고교 졸업 때까지 매년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수업 못지않게 과외활동도 중요하고 계획적으로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자격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녀가 원하는 꿈의 대학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9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양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10학년이나 11학년 때 인턴십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리서치를 하도록 한다. 1년이나 2년 전부터 자녀를 위한 준비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9학년부터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장이나 과외활동에 참가했던 기록, 일을 한 경험 등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종류의 기록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한다. 바인더를 준비해 짧은 설명과 함께 꾸준히 모아둔다면 대학 입학 지원서 작성 때 시간을 단축하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두 개 정도 레귤러 과목을 택해 좋은 성적(GPA)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무리한 선택 금물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으로 9학년 때부터 무조건 아너(Honor)나 AP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Pre 과목들을, 10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AP 과목을 터무니없이 많이 택했다가 성적관리에 실패하기도 한다.

실제로 운동이나 밴드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숙제할 시간도 모자라 결국 아너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9학년 초부터 성적이 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또 무리하게 9학년 때 AP 과목을 선택해서 B를 받고 실망하는 학생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학생의 학교 성적을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각기 다른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9학년에서 남들보다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출발부터 선두주자가 되겠지만, 그만큼 많

은 시간과 노력을 공부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무리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성적으로 최고를 노리는 충분히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9학년 시작하기 전 고교 카운슬러를 통해 Credit by Exam으로 일반 과목이나 아너 과목을 이수한 뒤 고급과목 수업을 신청해 보도록 하라. 크레딧은 인정받고 GPA로는 계산이 안 되는 CBE를 신청할 수도 있다.

2. 우수 학생들의 과목 플랜

- 9학년: 영어 I Honor, Geometry 혹은 Algebra II H, Biology H, World History, Spanish II, PE, Health/Technology, 오케스트라(band, Choir, Art).

- 10학년: 영어 II H, Algebra II 혹은 Pre-Calculus H, 아너 Chemistry, AP World History, 아너 Spanish III, PE, 오케스트라

- 11학년: AP English, Pre-Calculus(AP Calculus), AP US History, AP Biology, AP Spanish, AP Chemistry(선택), 오케스트라, PE(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 12학년: AP English, AP Calculus(AP Statistics), AP European History, AP Chemistry, AP Physics, AP Spanish, AP Psychology, AP Government, AP Computer Science, PE, 오케스트라

12학년 때 너무 많은 AP를 피하기 위해서는 12학년 이전의 여름방학을 기하여 칼리지 레벨의 과목을 듣는 것이 좋다.

대입지원 때 AP 시험성적은 11학년까지의 성적이고, 12학년 때 선택하는 AP 과목들은 시험 성적 없이 지원서에서 12학년 때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을 적는 것이므로 어떤 과목들을 듣고 있는지 보여주면 된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과목은 금물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공부 또한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좋다. 주중에는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SAT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말 내 친구들과 놀다가 일요일 늦게야 학교 숙제에 매달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대입 수험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입 직전의 4년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아주 짧은 기간일 수 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꾸려간다면 평생을 두고 건실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으니 투자하라.



제니 김 (존스홉킨스 입학사정관)

한번의 상담으로 마음이 편~해 집니다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부부갈등, 자녀문제.....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마음 편하게 한번 말씀 나눠 보실까요?

“남들은 저렇게들 재밌게 사는데 난 참 사는 재미가 없네.. 예후 ” (우울증)

“왜 저런 사람이란 결혼했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 (부부문제)

“퇴근시간 다가와 즐거운 저 표정을 난 집에 가기가 싫은데.. ” (가족갈등)

“하루종일 전화 오는데도 없고, 갈데도 없고 차를 몰고 그냥 아무데나 다니는 내 모습.. 눈가에 눈물이 ” (불안, 우울증)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슨 상까지 받아온다는데 학교도 안가 방안에서 그저 컴퓨터만 붙잡고 있는 아이 ” (자녀문제)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PSY 20615

-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Psychologist 라이선스 소지자
- 라디오코리아 아침마당 화요일 부부클리닉 진행
- 한국일보 주간 매거진[이] 컬럼 리스트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정회원
- 뉴욕 한미정신 건강협회 부회장 역임
- 뉴욕 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APA accredited) – staff psychologist
- 뉴저지 Monmouth Medical Center (APA accredited)
- 하와이 Tripler Army Medical Center (APA accredited)
- University of Hawaii – Counseling and Student Development Center (APA accredited)
- 하와이 Windwar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3701 Wilshire Blvd, Suite 504 L. A., CA 90010 (윌셔와 세라노 코너건물)

☎ 213.270.3957

진료
과목

우울증 / 불안,공포증 / 노이로제 / 불면증 / 충격증후군 등 각종 정신장애 / 청소년 문제 / 가족간의 갈등 (이혼/부부문제/자녀문제등)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 관리 / 학습장애 / ADHD / 심리치료 / 정신분석 / 바이오 피드백 / 각종 신경성 장애 (위, 두통, 심장등)

개인적인 비밀, 프라이버시
절대 걱정마시고 편하게
전화주십시오